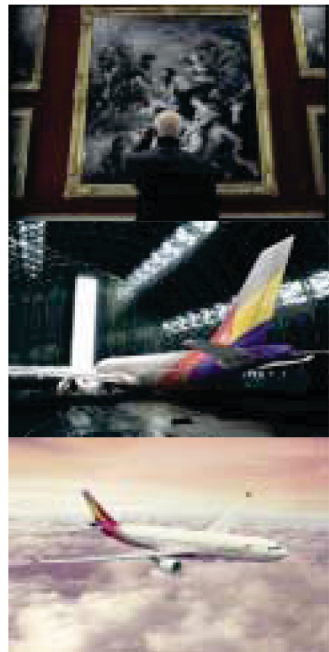


엘은 3단계 금연보조제로서 니코틴엘 TTS30(1단계), 20(2단계), 10(3단계) 세 가지 제품으로 출시되어 있다.

[새광고] 아시아나항공, 박물관



아시아나항공은 새롭게 바뀐 항공기 디자인을 소재로 신규광고를 집행했다. 새롭게 선보이는 TV-CF '박물관' 편은 아름다운 아시아나 New Livery를 컨셉으로 항공기 꼬리날개 부분의 색동모티브 (Energy of Saekdong)에 초점을 맞춘 광고다.

새롭게 변화된 아시아나항공 동체 디자인은 기존 아시아나항공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타 항공사와는 차별화

되는 stylish & trendy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새 디자인의 항공기와 더불어 영업장 및 공항 사인물, 항공권 커버, 아시아나클럽 카드, 각종 광고물 등도 색동모티브 이미지를 활용해 새롭게 바뀔 예정이다. 또한 기존 일반석의 명칭을 'Economy Class'에서 'Travel Class'로 변경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외형적인 동체 디자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변화를 통해서도 고객 서비스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LG전자]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07'서 최고 제품상 수상
LG전자의 차세대 DVD 재생장치 '슈퍼멀티블루(SMB) 플레이어'가 지난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쇼 'CES 2007'에서 'CES 올해의 제품상(Best in Show)'을 수상했다. 미국 최고의 온라인 IT 뉴스 사이트 CNET(www.cnet.com)는 매년 CES 출품작 가운데 10개 부



문별 '베스트 제품 (Best of CES)'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최고 평가를 받은 제품에 올해의 제품상을 주고 있는데,

SMB 플레이어는 차세대 DVD 규격인 블루레이와 HD DVD를 동시에 지원하는 세계 최초의 듀얼 포맷 플레이어로 올해 CES 행사에서 큰 화제가 됐다.

이회국 LG전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LG전자의 첨단 기술력으로 완성된 듀얼 포맷 플레이어에 대한 호평이 큰 상으로 이어졌다"며 "이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가 차세대 영상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새광고] 하나카드, 둘이 함께하면 혜택도 두 배



'뷰티풀 이노베이션 (Beautiful Innovation)' 슬로건 아래 하나카드가 아름다운 혁명을 일으켰다. '둘이하나카드'를 알리는 이번 광고는 '거리' 편과 '마트' 편으로 나뉘어 멀티 스팟

(multi-spot)의 형식으로 선보이고 있다.

'둘이하나카드'는 부부 또는 커플로 함께 가입하면 기본 포인트를 두 배로 쌓아주고,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5% 할인 해주는 혜택을 제공하여 맞벌이 부부나 여성들에게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하나카드의 서연중 홍보팀장은 "여성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 서비스 카드를 개발했고 이러한 둘이하나카드만의 차별적인 특성과 혜택을 부각시키기 위한 모션 광고(motion ad)를 기획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새광고] SK케미칼, 트라스트



SK케미칼 트라스트가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이번 광고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황혼 이혼'을 관절염과의 이혼'과 적절하게 연계시켜 지긋지긋한 관절염과의 고통과 결별하고 싶어하는 중년들의 심리를 적절히 대변하고 있다.

무릎관절염의 고통을 이혼과 연결시킨 트라스트의 이번 광고는 질병의 고통 해소를 표현하는 우회적인 메시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광고의 재미와 신선함을 제공하고 광고의 주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겉썩한 입담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며 대표적인 중년 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양희은 씨는 이러한 긍정적인 이

미지로 트라스트의 광고 모델을 2년째 연장하고 있다.

[새광고] 두산주류, 백화수복



주몽의 꿈에서 고구려 건국을 위한 세 가지 신물을 알려주었던 비금선 신녀(송옥순)가 2007년 설날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새로운 계시를 전해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어두운 동굴에서 홀연히 나타나 옛 조선의 황제를 상징하는 신물을 알려주던 비금선 신녀가 백화수복 TV-CM에서는 다가오는 설날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제사의 세 가지 원칙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

백화수복 TV-CM에 나타난 비금선 신녀는 명절 조상을 모시는 가장 중요한 첫번째가 백화수복임을 특유의 찌렁찌렁하고 서슬 퍼런 목소리로 강조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여운을 남기며 사라진다. 장면이 바뀐 곳은 회사 사무실. 회사에서 즐기고 있던 남자의 꿈 속에서 비금선 신녀가 나타난 것. 조상님을 모시는 설날같이 중요한 제사에는 쌀로 정성껏 빚은 청주인 백화수복을 올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국민 사극 '주몽'을 패러디해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하고 있다.